

가산농협 게르마늄쌀 시범 재배

1만1천여평 시약 수령 및 설명회 가져



가산농협(조합장 심재호)은 지난 6일 오후3시 조합장실에서 관내 게르마늄쌀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약전달 및 시범재배요령 설명회를 가졌다.

게르마늄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게르마늄 함유 액비사용시 지플러스 미네랄을 경운하기 전이나 또는 씨뿌릴 후 최소량의 담수한 상태에서 전 면적에 골고루 살포한다. 또 5천㎡총량을 1천평의 면적에 살포한다.

지플러스 알파는 염면시비용으로 유수분화기에 버 이삭거름주기 1주일전, 1천㎡ 1병을 500ℓ(25달)에 희석하여 1천평(5마지기)에 흙백 염면시비한다.

출수기에는 수정직후에 1천㎡ 1병을 500ℓ(25달)에 희석하여 1천평(5마지기)에 흙백 염면시비한다.

올해 시범재배를 통해 쌀에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되어 생산된다면 큰 수확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게르마늄 쌀 재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 시범 재배농가는 이규흔씨가 4천평, 이영혁씨가 4천평, 가산농협 1천평, 김영섭씨 1천평, 최범욱씨 1천평 등이다.

심재호 가산농협 조합장은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번 게르마늄 쌀 시범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전통방식 절임류의 명가

승화식품 대표이사 김택곤



1984년 설립되어 20여년 넘게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현대 음식과 접목시켜 절임류 반찬 생산 국내최고기술을 자랑하는 승화식품(주) (본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22, 포천공장: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309, 대표이사: 김택곤), 승화식품(주)은 1996년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취득과 동시에 포천에 생산공장을 완공해 본격적으로 절임류 반찬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량 구입하여 소금, 된장, 간장 등의 발효식품에 저장했다가 맛이 들면 꺼내먹는 밑반찬으로 고추장마늘, 고추무침, 고춧잎, 양념깍두기, 간장깍두기, 된장깍두기, 생깍두기, 간장마늘, 간장마늘쫄, 통마늘, 더덕, 오복채, 간장고추, 고추장오이, 된장고추 등이다.

조림류는 고기나 생선 등을 집간장이나 고추

농산물 가공부문 대상 수상 업체 지하 200m에서 용출되는 암반수 이용

4년 후 식품제조와 가공업 영업신고 시작으로 2002년 11월 11일 포천농업인의날에서 농산물 가공부문 대상 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제품의 품질과 철저한 위생, 납기일 준수로 승화식품(주)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장에 조리해서 만든 조림법인데, 예로부터 장조림이 발달하여 밑반찬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조림은 고기나 생선을 큼직하게 썰어 간은 강하게 하고 불은 약하게 하여 오래도록 익히는 것으로 연근, 북어찜, 땅콩조림, 콩자반 등이 있다.

무침류는 나물 또는 해산물을 간장이나 고추장에 무치거나 담가서 만든 밑반찬으로 파래무침, 쌀게장, 무말랭이, 꼬들배기, 간장게장, 오이지, 꽃게장 등이다.

또한 2002년 김치개발 부문 유관상품 동상과 2003년 5월 세계음식박람회(COEX) 동상 수상, 바로 6월에 부산국제식품박람회(BEXCO) 참가, 10월에는 미국 뉴욕식품박람회에 참가, 2004년 5월 하이서울에 참가하는 등 절임류 반찬으로 세계시장 개척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것갈류는 어패류를 소금에 저려서 발효시킨 것으로 밥 반찬 외에도 김장김치에 넣기 좋은 부재료로 오징어젓, 참란젓, 낙지젓, 아가미젓, 골두기젓, 뱀젓, 명란젓 등이다.

건어물류로는 건어물을 고추장, 간장 등의 양념에 무치거나 조리해서 만든 밑반찬으로 오징어채, 쥐포채, 명엽채, 장어포, 병어포, 잔멸치, 새우, 사각쥐포 등이 있다.

승화식품(주)에서 아심차게 생산하고 있는 절임류 종류를 알아보자.

문의 02) 960-6041 031) 535-6626

우선 장아찌류는 제철에 많이 나는 야채를 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5월 소비자물가 안정세 전망 고유가 시대 주유소 기름값 계속 올라

재정경제부 소비자물가 오름세 한풀 꺾여

재정경제부는 5월 소비자물가는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농산물 공급이 증가해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과 공공요금의 하락해 전월대비 포함세를 보였으며, 이로써 작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꺾이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한, 재경부는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해 전달의 3.3% 보다 상승률이 둔화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소비자물가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물은 기상 호전에

따라 채소류 출하량이 늘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떨어졌고, 공업제품 가격은 일부 품목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특별소비세 인하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에 비해 변동이 없었다. 이 밖에 집세는 이사철 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는 예년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하락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적기에 대응 조치를 취하는 등 물가안정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포천 최고 무연휘발유 1천390원, 경유 890원 판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 관내 주유소 기름값이 수시로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 9일 현재 포천관내 주유소의 유가는 무연휘발유의 경우, 1ℓ당 1천290원부터 1천390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다.

경유는 1ℓ당 810원부터 890원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다.

기름값 조정은 각 정유회사마다 원유가 변동폭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에서는 주유소 나름대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연휘발유는 카드이용시 현금이용보다 40원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경유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카드이용시 20원씩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파동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곳은 무연휘발유의 경우 1ℓ당 1천390원, 경유는 890원, 가장 싸게 판매하는 곳은 영종면 J주유소 1천290원으로 1ℓ당 100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는 가장 비싼곳이 890원에 판매하는 영북면의 SK, 가장 싸게 판매하는 곳은 1ℓ당 810원에 판매하는 영종면의 J주유소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주민위한 잔치 마련

가산면 경흥산업(주) 7년째 주민봉사

금속 콘크리트 방식 보수제 생산업체인 경흥산업주식회사(대표 심현관)가 매년 어버이날을 전후로 주민위한 잔치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5시30분부터 시작된 주민위한 잔치에는 경흥산업(주)이 위치한 가산면 가산리 474-2번지 주변의 가산3리와 방죽3리 주민 100여명이 함께 했다.

1천500평의 부지위에 마련된 잔치상을 받아든 주민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날 잔치를 마련한 심현관 대표이사는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회사를 개방하고 주민들과 함께 한 자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운국 포천시장은 "오늘 경흥산업과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이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는데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잔치는 다과를 즐기며 그동안 숨은 노래실력도 마음껏 발휘하며 지역 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하나되는 계기가 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승화식품 전경.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 ★ 생산 품목
 -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용투류
 - 커피용투류, 각종 호일백류
 -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 낙시용품 포장지류

- ★ 용도
 -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 ★ 가공 제품
 - 스텐명상방, M자기방,
 - 스텐명지퍼, T자기방, 지퍼명상방
 -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포장지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